

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

학교	산동대학교	성명	전범순	학년	4	생년월일	1986년 12월 22일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은상

영호를 구하는 명약 — 양심

한국에서 유학하던 어느 날 나는 집에

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mbc의 <일

요일 일요일 밤에>의 <양심 병장고>

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다. 한국에서 유명

한 개그맨 이정규가 나와 감시 카메라

를 설치하여 정지선을 지키는 문전자에게

병장고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. 나는

“그까짓 정지선 지키는 일이 뭐가 그

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을

만들었지?”라는 생각에 <양심 병장고>

를 시시한 프로그램으로 느꼈었다. 하지만 하

루가 지나고, 이틀이 지나고 ... 정지선을

지키는 문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

았다. 나는 “그런 사람이 과연 한 명

도 없을까?”라는 오기가 생겨서 그

프로그램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다. 그

런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정지선을 지

킨 문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. 이정규가

기뻐서 흥분할 때 시청자인 나도 함께

떨듯이 즐거워 동요되었다. 이정규는

환호를 외치며 뛰어가 양심을 지킨 자

동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문전자에게 “축

하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을 드

디어 당신이 지키셨습니다.”라는 축하

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

학교	산동대학교	성명	전영순	학년	4	생년월일	1986년 12월 22일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폐 세 지 를 전 한 뒤 에 “ 양 심 맨 ” 에 게 수
 상 소 감 을 부 착 하 였 다 . 하 지 만 우 리 의
 “ 양 심 맨 ” 은 뜻 밖 에 도 두 발 이 없 는
 반 신 불 구 의 장애인 이 었 다 . 흥 부 의 도 가 니
 에 빠 져 던 사 람 들 이 커 다 란 충 격 을 받
 은 것 처 럼 모 두 들 잠깐 동안 할 말 을
 잃 었 었 다 . 나 도 마 찬 가 지 로 망 치 로 머 리
 를 얻 어 밟 은 것 같 아 한 동안 났 을 잃
 었 ~~있~~ 었 다 . 반 신 불 구 의 장애인 도 자 신 의
 양 심 을 지 켜 줄 아 는 데 하 물 며 전 감 한
 신 체 를 가 진 우 리 들 이 못 하 다 는 게 말
 이 되 는 가 ? 그 후 로 《 양 심 병 장 고 기 는
 사 람 들 이 평 소 에 무 심 코 지 나 치 는 양 심
 을 일 깨 우 주 는 프 로 그 램 이 대 폭
 늘 아 졌 었 다 . 나 는 그 프 로 그 램 을 볼 때
 마 다 가 심 을 움 껴 주 면 서 나 의 양 심 에
 가 책 을 느 낌 지 난 살 의 일 들 을 떠올 리 곤
 했 었 다 .
 고 3 때 의 일 이 다 . 대 학 입 시 를 앞 둔
 우 리 는 셀 수 없 는 점 도 로 많 은 시 험
 과 산 더 미 처 럼 수 불 이 쌓 인 문 제 집 에
 매 달 려 야 했 었 다 . 학 교 에 서 는 우 리 의 사
 기 를 북돋 아 주 기 위 해 중 간 고 사 에 서 1
 등 , 2 등 , 3 등 을 차 지 하 는 학 생 들 에 게
 장 학 금 을 주 겠 다 고 했 었 다 . ~~바~~ 늘 가 난 에

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

학교	산동대학교	성명	전범수	학년	4	생년월일	1986년 12월 22일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쪼들리느니 나느니 "장학금"이라느니 말에
 몹시 습득을 들이게 되었다. 이 장학금
 만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의 부담도
 덜어 드릴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는
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
 기 때문이다. 반장으로서는 담임 선생님의
 사무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 * 는
 나느니 선생님의 외출을 틈타서 컴퓨터와
 서류를 뒤져 중간고사 문제를 찾아냈다.
 나느니 마구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시
 험문제 파열을 나의 이데올로기 보냈었다.
 그리고 나느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
 에서 시험 문제를 꼼꼼히 훑어 보았다.
 결국은 중간고사에서 나느니 막심막하한
 친구들을 제치고 1등의 장학금을 거머
 쥐었다. 하지만 며칠 후 나느니 양심의
 가책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되었다.
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다들 내가 치사한
 방법을 써서 1등을 했다는 것을 눈치
 채 꺼처럼 보았고, 주위에서 는 "재 양
 심에 툴났어!"라느니 야유 소리가 쏟아
 져 나를 휩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
 다. 그리고 마치 송곳에 찔린 것 같은
 양심의 아픔을 느꼈다. "난 돈 몇 톨
 에 넘어가서 양심조차 지키지 못한 놈

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

학교	산동대학교	성명	전범준	학년	4	생년월일	1986년 12월 22일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이로구나!"라고 스스로가 운망스러워
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.
 그날부터 "난 살만어 주시능 선생님을
 배신하고 비점한 수단으로 친구들을 제
 했어!"라고는 양심의 가책이 병처럼 되
 어 자나 깨나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
 않았다. 또한 "남들이 이미 알아챘나?"
 라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내 뒤를 계속
 따라다녔다. 그래서 한동안 나는 누구와
 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느
 누구와 말도 안한 채 마음을 견어잠그
 고 우울하게 지내었다. 마치 가시방석에
 앉은 듯이 안절부절못한 나는 견디다
 못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있던 말
 을 짝꿍한테 털어놓았다.
 "돈이 중요해? 양심이 중요해?"라
 고 묻자 그녀는
 "당연히 양심이 중요하지. 돈이 없더
 라도 존경을 받을 수 있어. 하지만 양
 심이 없으면 존경을 받기능 커녕 손가락
 짚 받을 거야."라고 말해줬다. 그 친
 구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문방울 소리
 처럼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었다.
 나는 친구의 말대로 용기를 내어 담
 임선생님을 찾아가 이실직고하였다. 비록

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

학교	산동대학교	성명	전범순	학년	4	생년월일	1986년 12월 22일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처 별을 받았지만 양심에 찢린 누물 한
 마 음 이 확 달아났다. 양심 의 가책을 받
 던 마 음 의 먹구름이 마침내 전히 고 빛
 이 비치기 시작하였다.
 한국 시민 운동 주의 《서시》에 이런
 말이 있다. “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
 러, 한 점 부끄러움 없길.” 이는 터연
 속이 절백한 양심을 가지길 바라는 시
 인의 염원이며 우리에게 양심을 지키는
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 이라는 것을 일
 깨워 주는 시이다. 양심은 선과 악, 옳고
 그름의 사이에 숨은 정계선이고, 명분을
 그릇된 권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는
 수호자이며, 자신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
 했는가를 뒤돌아 보고 반성하게 하는 파
 랑새이다. 그러나 현대 사회의 발전 속
 도가 너무 빠른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
 양심을 외면한 채 이기적으루 살아가고
 있다. 아무테나 휴지를 버린다면, 줄을
 안 선다면, 교통 질서를 안 지킨다면
 지,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
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행동들은
 비록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양심의 가
 책 을 충 복 하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.
 양심 이 있 기야 이 세상은 더욱 밝고

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

학교	산동대학교	성명	전범순	학년	4	생년월일	1986년 12월 22일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향기로운 낙원이 될 수 있다. 물을 주
 고 길을 매어 꽃을 가득 피게 할 것이다.
 구어야 할 것이다. 오늘 하루는 밤에
 잠들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
 오늘도 열심을 잘 지켰는지 한번 물어보
 면 어떨까요?

끝